

은행권 '워라밸' 문화 업그레이드

저녁반찬 포장에 자기개발·자율복장·휴가지정까지

신한은행

'저녁밥이 있는 삶'·웰프로 제도

KB국민은행

유니폼 전면폐지·워라밸 아카데미

KEB하나은행

'휴식이 있는 삶' 프로젝트

우리은행

휴양시설 제공·체험여행 운영 등



(왼쪽부터)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경.

/각사 취합

연속 10일 간의 휴가는 눈치볼 일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복장은 자유롭고, 와인이나 도자기 등 취미활동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돼 있다. 24시간 개방된 회사 피트니스센터와 도서관에서는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퇴근 전에 구내식당에 들러 앱으로 신청해 놓은 저녁반찬을 포장해 간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PC-오프(OFF)제나 '가정의 날' 정시퇴근 시행을 넘어 휴가와 취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

달부터 구내식당에서 맛별이나 1인 가구 직원들의 '저녁밥이 있는 삶'을 위해 반찬포장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마트워크 통합 앱인 '에스워크(s-work)'에 마련된 '신한 카페(cafe)'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고, 당일 오후 6시에 식당에서 가져가면 된다. 은행 뿐 아니라 그룹내 계열사 임직원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휴가 역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일 간 사용할 수 있는 웰프로(Wel-pro)1과 상황에 따라 3일간 연속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웰프로2로 제도를 이원화해 운

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유니폼 전면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KB 워라밸 아카데미로 취미생활과 재능을 지원하고 나섰다.

KB 워라밸 아카데미는 도자기·와인·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자기 클래스의 경우 자녀도 함께 참석할 수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시리즈로 '워라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요일에 한해 실시했던 근무복장 자율 착용은 일상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으며, 직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휴가

사용을 위해 징검다리 휴일과 전·후일을 묶어 '휴가 꾸러미'를 지정했다. 징검다리 휴일 전·후에 휴가 사용은 많은 직원들의 희망사항이지만 인기가 많아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KEB하나은행은 직원들을 위해 본점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를 24시간 개방키로 했다. 지성규 행장이 취임한 이후 이달 초 직원들과 가진 '치맥타임'의 결과물이다.

하나은행은 '휴식이 있는 삶' 프로젝트 전 직원이 연초에 등록하는 휴가 계획대로 연간 15일 이상의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

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은행 내에 상근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와 제휴된 기관 등을 통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가정·양육, 대인관계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가족동반 체험여행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孝)여행 ▲자녀교육(입시, 육아)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대한항공 B787 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B737-800 항공기.

/제주항공

보잉·에어버스 등 10여 종 400대 종횡무진

항공업계 항공변동

4.항공사별 운항 기종 (끝)

국적사 보유 항공기 일제점검 조종사 237명에 기량 특별심사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국적 항공사 보유 항공기 400대에 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조종사 237명에 대해선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항공기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B737 맥스 8 항공기의 추락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었던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항공기 기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B787, B777과 A380, A330, A220 항공기를 운항하며 아시아나항공은 A350-900, B747-400, B767-300, A321-100/

200, A320-200 등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우선 보잉사의 B787-9는 269석으로 최대운항거리 1만1970km, 항공기 길이는 62.8m, 날개폭 60.1m, 높이는 17m다.

긴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B777-300은 338석으로 최대운항거리는 8067km다. 항공기 길이는 73.86m, 날개폭 60.93m, 항공기 높이는 18.76m다.

최첨단 기술로 소음과 탄소를 저감한 B747-400은 404석이다. 최대운항거리는 1만1349km다. 항공기 길이는 70.67m, 날개폭 64.92m, 항공기 높이는 19.51m다.

B767-300의 좌석 수는 250석~290석이다. 최대운항거리는 6695km, 최대운항고도는 1만3137m다. 높이는 15.85m, 길이는 54.94m, 날개폭은 47.57m다.

에어버스사의 A330은 성능이 향상된 엔진을 장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소음은 최소화한 친환경 항공기다. 좌석수는 276석~272석이며 최대운항거리는 9449km다. 순항속도는 879km

/h, 항공기 길이 63.69m, 날개폭 60.3m, 항공기 높이는 16.83m다.

A220은 탄소복합소재를 사용해 항공기 경량화를 이뤘다. A220-300은 127~130석으로 최대운항거리는 4786km, 순항속도는 836km/h다. 항공기 길이는 38.7m, 날개폭은 35.1m, 항공기 높이는 11.5m다.

A350-900은 311석으로 최대운항거리는 1만2156km, 길이는 66.8m, 날개폭 64.75m, 높이 17.05m다.

A380-800은 세계 최초로 2층 전체를 프레스티지 클래스 전용 층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좌석 수는 407석, 최대운항거리는 1만3474km, 순항속도는 912km다. 항공기 길이는 72.72m, 날개폭 79.75m, 항공기 높이는 24.09m인 대형 항공기다.

LCC(저비용항공사)업계 만형, 제주항공은 B737-800항공기 1개 기종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B737-800은 현재 100~200인승 항공기 중 가장 인기 있는 기종으로 전 세계 2000여대를 운항중이다. 좌석 수는 189석, 항속거리는 5130km, 전체길이는

39.50m, 날개폭 35.79m다.

진에어 역시 이 기종을 22대 보유하고 있다. B737-800은 신규 LCC인 플라이강원이 구매계약을 진행 중인 항공기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령이 20년을 넘거나 고장 빈도가 잦은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 운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의 기장 237명에 대해선 이달부터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하며 심사에서 떨어지면 조종업무에서 제외하고 재교육과 재평가를 통해 업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음선) : 300,000 → 130,000원
5월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귀사의 성공을 위한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